

# Issue Brief

JEJU WOMEN & FAMILY RESEARCH INSTITUTE

[No.66]

발행처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발행일 : 2022. 11. 30 | 발행인 : 민무숙

## 가족과 지역 공동체의 관계에 대한 제주도민의 인식 및 교류 실태 분석<sup>1)</sup>

강 권 오 연구위원

### 1. 들어가며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지역만이 가진 특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주민들간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 왔으며, 이러한 풍습은 수놓음 문화, 켄당문화 등으로 표현되며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지역을 관통하는 관행이자 문화로 자리잡아 왔음
- 다만 최근 지속적인 도시화의 진행, 이해관계자의 증가, 가치의 변화 등으로 인해 이웃 간의 교류의 단절 및 관계 약화라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제주지역이 가진 고유한 공동체 문화의 약화를 의미함
-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출범한 민선8기 제주도정은 도민들 간 화합을 통한 사회 발전의 동력 마련을 목적으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 사회 조성'을 7대 도정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1) 본 연구의 내용은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실태조사」 연구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재가공하여 작성되었음



-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 사회 조성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 간 반복적이고 긍정적인 관계의 축적을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등의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음
  - 상호간의 신뢰는 일반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바,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 조성 및 사회적 자본 형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 간에 긍정적이고 반복적인 관계가 누적되도록 시도할 필요가 있음
  - 즉, 지역 주민들 간 긍정적이고 반복적인 관계가 누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공동체 사회 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인식을 먼저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민의 지역사회 및 이웃과의 관계 인식,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이웃 간 신뢰할 수 있는 제주 사회 조성을 위한 사회적 자본 강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2. 이웃과의 관계 및 교류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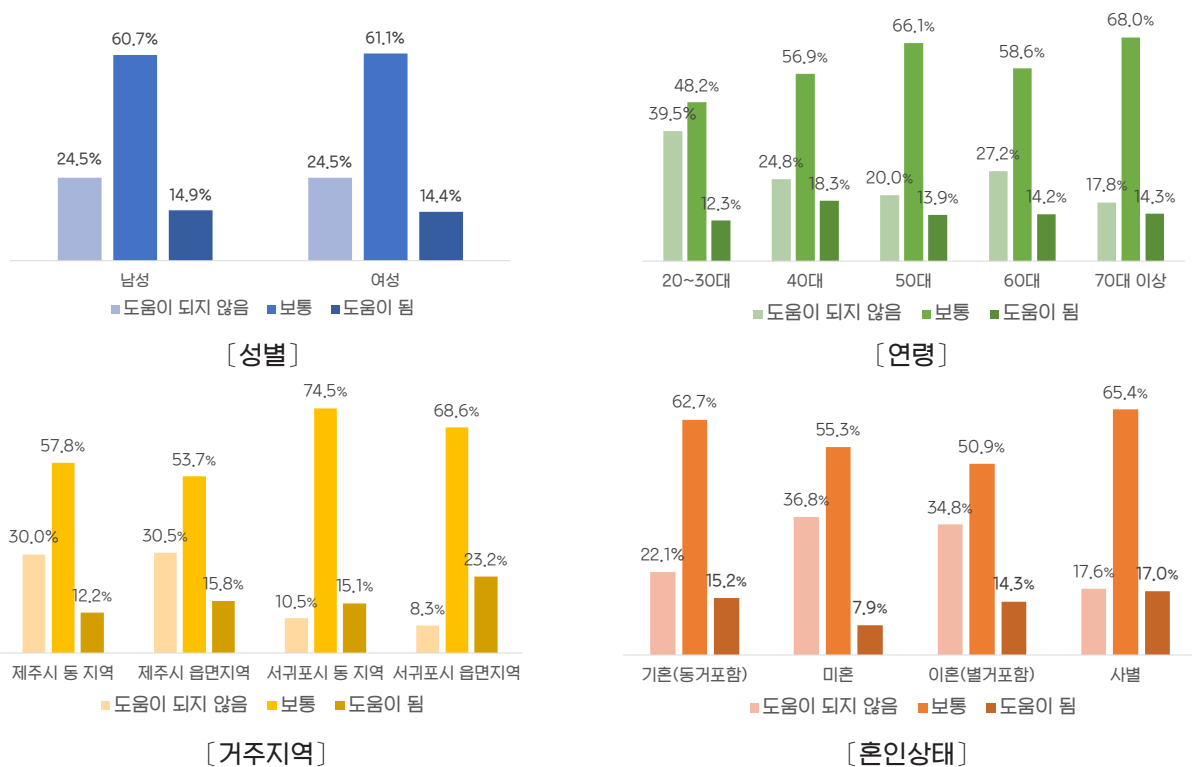
### ■ 조사개요

-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 가구주 및 가구주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2022년 8월 8일부터 9월 2일 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전체 응답자는 1,009명(남성 356명, 여성 653명)으로서 표본을 지역별로 비례할당 하였으며, 연령별로는 50대(29.2%), 70대 이상(20.1%), 60대(18.9%), 40대(17.9%), 20~30대(13.8%) 순으로 표집되었음

### ■ 일상생활에서 공동체의 필요성

- 일상생활에 있어서 지역 공동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도민들은 지역 공동체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긍정 14.6%, 부정 24.5%)
- (성별) 지역 공동체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여성(14.4%)에 비해 남성(14.9%)이 조금더 긍정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음
- (연령) 연령별로는 40대(18.3%), 70대 이상(14.3%), 60대(14.1%) 순으로 긍정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의 부정 응답률(39.5%)은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 (거주지역) 읍면지역(제주시 15.8%, 서귀포시 23.2%)의 경우 동 지역(제주시 12.2%, 서귀포시 15.1%)에 비해 일상생활에서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혼인상태) 사별한 응답자 집단의 긍정 응답률이 1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동거포함), 이혼, 미혼 순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미혼의 경우 긍정 응답률이 7.9% 수준에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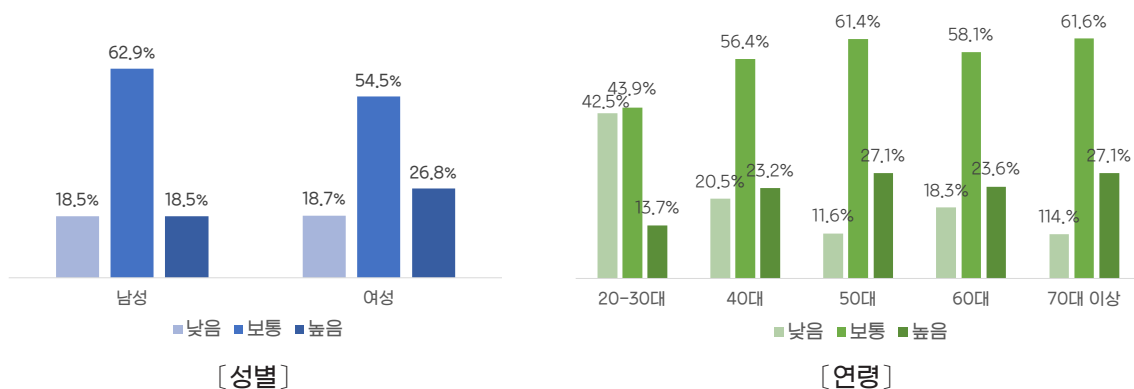
[그림 1] 일상생활에서 공동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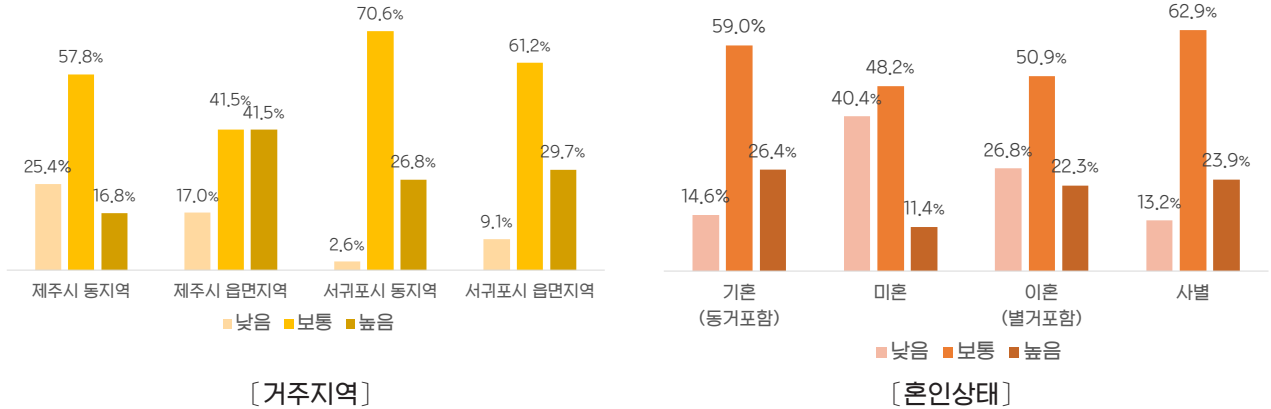


## 이웃과의 교류 수준

- 이웃과의 교류 수준과 관련하여, 이웃과의 교류가 낮다는 부정 응답에 비해 교류가 높다는 긍정 응답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긍정 응답률은 23.8%에 그치고 있음
- (성별) 남성(18.5%)에 비해 여성(26.8%)들의 이웃과의 교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 50대 및 70대 이상(27.1%), 60대(23.6%), 40대(23.2%)로 나타나는 등, 대체적으로 고 연령대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됨
- (거주지역) 읍면지역에서의 이웃과의 교류 수준(제주시 41.5%, 서귀포시 29.7%)이 동 지역(제주시 16.8%, 서귀포시 26.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 동지역의 경우 유일하게 긍정보다 부정 응답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혼인상태) 기혼자(동거포함)의 이웃과의 수준이 26.4%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별, 이혼(별거포함), 미혼 순으로 교류수준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2] 이웃과의 교류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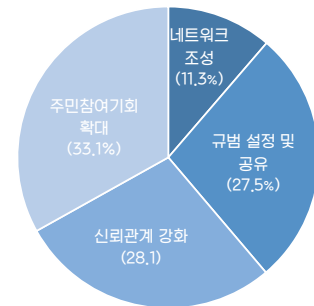




### ■ 이웃간의 교류 강화를 위한 공동체 지원 정책 유형별 수요

- 응답자를 대상으로 이웃간의 교류 강화 및 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수요를 질문한 결과,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신뢰관계 강화(28.1%), 규범 설정 및 공유(27.5%), 네트워크 조성(11.3%) 순으로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3] 유형별 정책 수요



## 3. 가족과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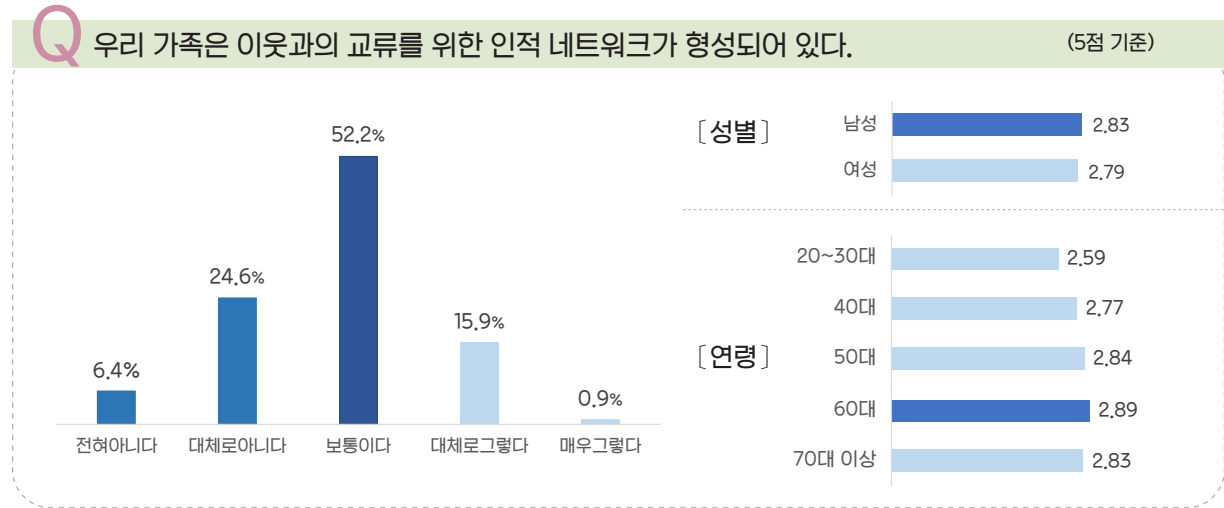
- 여기에서는 가족과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인식을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가족의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 사회적 자본의 구성 요소는 매우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R. Putnam(2000)이 자신의 저서에서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네트워크, 규범, 신뢰의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한 이후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유사한 형태로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최근 이러한 흐름에 더하여 실질적인 참여의 보장과 관련된 '주민참여'의 항목이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 네트워크, 규범, 신뢰, 주민참여 등 총 네 가지 요소를 토대로 가족과 공동체 관계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음

### ■ 인적 네트워크 형성

-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이웃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16.8%로서,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자 비율(31.0%)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인식을 점수화(5점 기준)하여 분석한 결과, 여성(2.79점)에 비해 남성(2.83점)이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고 연령대(60대 2.89점, 50대 2.84점)가 저 연령대(20~30대 2.59점, 40대 2.7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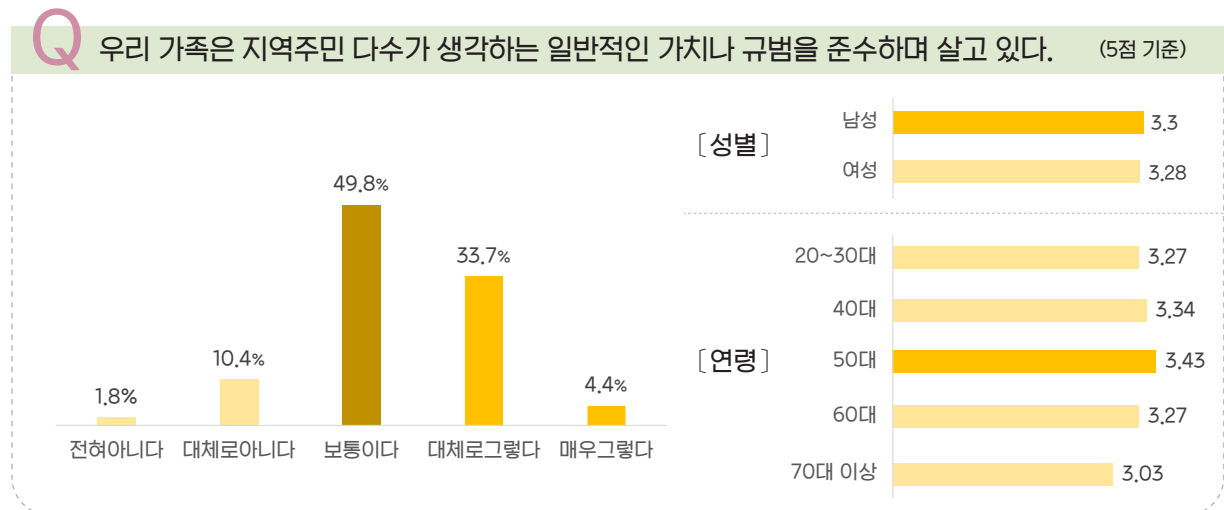
[그림 4] 이웃과의 교류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형성 여부



■ 규범 준수

- 지역주민 다수가 생각하는 가치나 규범의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비율(38.1%)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비율(12.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석(5점 기준) 결과, 여성(3.28점)에 비해 남성(3.30점)이 지역사회 가치나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중년층(50대 3.43점, 40대 3.34점)이 대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기록한 반면, 70대 이상 고 연령층의 경우 가치 및 규범 준수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3.03점)를 나타내고 있음

[그림 5] 지역주민 다수가 공유하는 일반적 가치나 규범 준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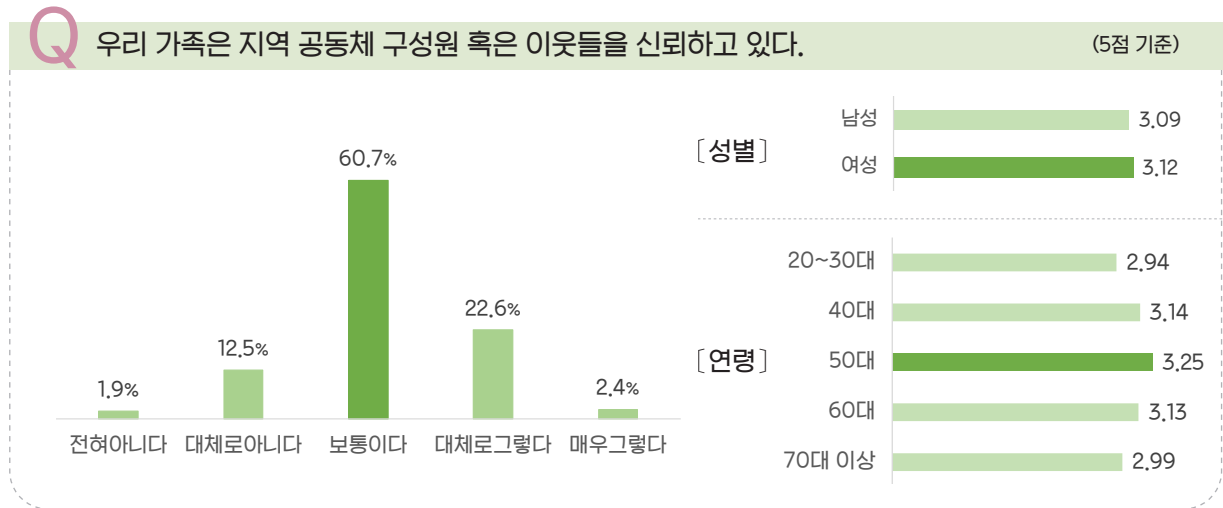




## ■ 이웃과의 신뢰

- 공동체 내에서 함께 생활하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신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중 긍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비율(25.0%)이 부정적인 응답을 한 응답자 비율(14.4%)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등, 제주도민들은 대체적으로 이웃들은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석(5점 기준) 결과에 따르면, 여성(3.12점)이 남성(3.0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감을 높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60대 중년층(40대 3.14점, 50대 3.25점, 60대 3.13점)이 긍정적인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20~30대(2.94점) 및 70대 이상(2.99점) 연령층의 경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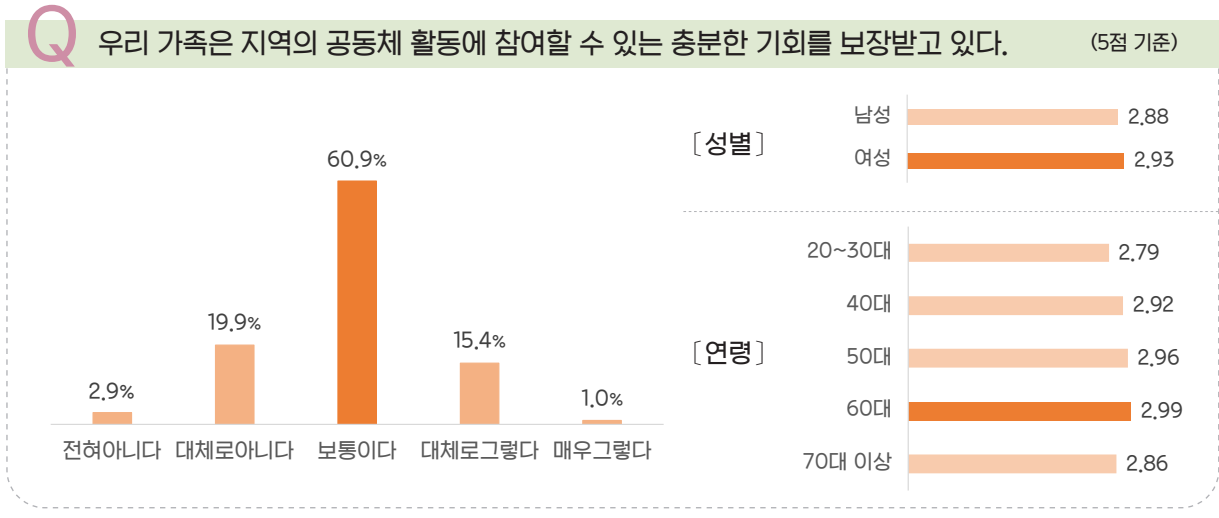
[그림 6] 지역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신뢰 여부



## ■ 공동체 활동 참여 기회

- 지역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정도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 중 22.8%는 부정적인 의견을, 16.4%는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는 등 긍정적 의견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음
- 성별 및 연령에 따른 분석(5점 기준) 결과, 남성(2.88점)이 여성(2.93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민참여 기회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40~60대 중년층(40대 2.92점, 50대 2.96점, 60대 2.99점)이 상대적으로 높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20~30대의 경우 2.79점으로 주민참여 기회에 대해 매우 낮은 인식을 나타내고 있음

[그림7] 공동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여부



## 4. 시사점

### ■ 지역 공동체와 가족의 생활에 대한 관계인식 개선 필요

- 제주도의 경우 물리적으로 고립된 섬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특성이 관계 형성에 매우 강력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나, 최근 교통 및 통신의 발달,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의 결속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관계의 축소는 지역 주민들 간 왕래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곧 지역 내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족, 가족과 가족 등 전반적인 지역사회 내 관계에 있어서 사회적 자본의 약화를 야기하였다고 볼 수 있음
- 가구주 대상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대체 공동체와 가족의 생활 간에 큰 관계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과 가족, 공동체 등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약화라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 지역 공동체 내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은 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향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활용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 간의 사회적 자본을 강화하기 위한 인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 저 연령 가구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 마련

- 저 연령층의 경우 고령층에 비해 비대면 관계에 익숙하고, 사회적인 관계 또한 비대면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물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 가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사회 내 오랜 기간 거주한 가구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대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 수요 또한 20~30대 저 연령 세대주의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 내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간 긍정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바, 상대적으로 이웃과의 대면 관계 형성에 취약한 저 연령 가구를 중심으로 대면 관계(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 공동체 생활에서의 주민참여 채널 확대

- 원활하고도 현실적인 공동체 운영 및 조성을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수요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지역 공동체 내에서는 다수의 수요가 존재하거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지원되고 있음
- 특히 1인가구, 조손가족, 편부모 가족, 재혼가족 등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가족의 경우 정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여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여건 및 환경 개선 등에 있어서 본인들의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실제 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의 유형별 정책 수요와 관련하여 주민참여에 대한 정책 수요가 다른 유형의 정책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참여와 관련된 인식 점수 또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공동체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의견을 드러내고 현실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의견 수렴 방안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참고문헌 ■

권연화 · 최열(2021), “개인의 사회적 자본이 사회적 갈등 인식 및 포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국토연구』, 110 : 95-112.

김태준 외(2010), 『사회적 자본 효과 분석 및 체계적 지원 방안』, 서울 : 고려문화사.

부만근(2022), 『지역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 제주 : 온누리디앤피.

Putnam, R. D.(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